

마음이 있기에

안윤지

우린 무엇 때문에 힘든 마음이 생기는 걸까? 마음 속 웅덩이 하나에 물수제비를 하듯 질문이란 돌맹이를 던진다.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위로 받기 원하게 하는 걸까?

최근 들어 주변을 보면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사람들이 꽤 여럿인 것 같았다. 나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지쳤던 경우가 꽤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날들을 집에서 우울하게 보냈던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닿지 않음에도 나를 위로해 주었던 건 바로 사람들이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보단 둘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인생은 혼자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꼭 껴 있는 편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m, 심리적 거리두기는 20m라고 말하는 듯 얼굴을 보지 못하니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근근이 올라오는 SNS 사진 속 근황들에 좋아요를 누르며 '나 아직 여기 있다!'를 알릴 방법 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타인에게 나의 존재를 부각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관계라는 건 누구 하나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관계 아닌가? 나는 그 어렵고도 복잡한 것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그것들에게 위안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이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싸우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하며 소외당하기도 한다. 그 모진 수모를 겪어도 결국 나는 사람 곁으로 돌아간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들을 메꿔주고 어루만져주는 것도 다 사람이 해 주는 것이니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듯, 사람 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나는 줄곧 사람들에게 위로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마음의 거리들은 내가 쉽게 좁힐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내 집으로 돌아가듯 사람 곁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기대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 나를 신경 써 줄 겨를도 없었고 연락 자체가 끊긴 지 오래였다. 대뜸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일들로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상대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 어떤 미사여구로 꾸민다고 한들 갑작스러운 연락과 그 안에 담긴 부정적인 내용은 연락 받는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나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대에서 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어떤 일로 힘들어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나다.

내가 여태 겪어 온 문제들에서 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전부 해 준다는 것이다. 나는 여태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날 힘들게 한 사람과 나의 신뢰는 일방적인 것이었고 그 사람은 날 신뢰조차도 안 했던 게 대부분이었던 거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람을 쉽게 믿는 건 독이다. 그러나 나는 그 독을 이롭게 쓸 줄도 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 사람을 쉽게 믿는 것. 내가 여태 살아오면서 발견한 내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정이 많고, 눈물이 많아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나는 안다. 이 사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내가 날 아껴야 나도 남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지만, 16년을 살면서 내 외모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때도 있었고, 사람을 좋아한다 했던 내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적도 있었으며,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안다는 내가 내게 위로는 커녕 욕만 했던 적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날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그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던 건 나였기 때문이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한 성장할 수 있던 것도 다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모든 일들이 나였기에 가능했고, 나였기에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거다. 이 사실은 내가 예전부터 들어왔었고 알고 있던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걸 잘 넘기지 못했다. 커다란 콩 하나 먹기 싫다고 꿀꺽 삼키면 당연하게 목구멍에 걸리듯, 미움이라는 커다란 콩은 내 마음에 들어오기엔 너무 크고 벅찼다. 하지만 그 콩은 기어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집까지 마련해서 살고 있었다.

미움이란 건 그런 것이다. 원하지 않았지만 필수적으로 받게 되는 것. 내가 평화주의자고 남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난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었다.

콩은 언제쯤이면 내 마음 속에서 나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콩



이 나갈 일은 없다는 것을. 콩이 나가도 새로운 콩이 들어오겠지. 나는 콩과 마음을 나누기로 마음 먹는다.

마음이 없다면, 우린 사람과 사랑으로 인해 지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한다. 상처를 모를 것이고 마음속에 웅덩이 하나가 생길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을 나누는 일이 따뜻한 일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마음 뿐이고, 사람뿐이라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뿌려 놓은 빵 조각들을 새들이 다 먹었지만 무사히 집에 돌아왔던 헨젤과 그레텔처럼 우리는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마 다시 주변 사람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사람 곁에 머물지 않을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 질 테니까.

코로나 시대 속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들은 사람들이고, 나 자신이다.